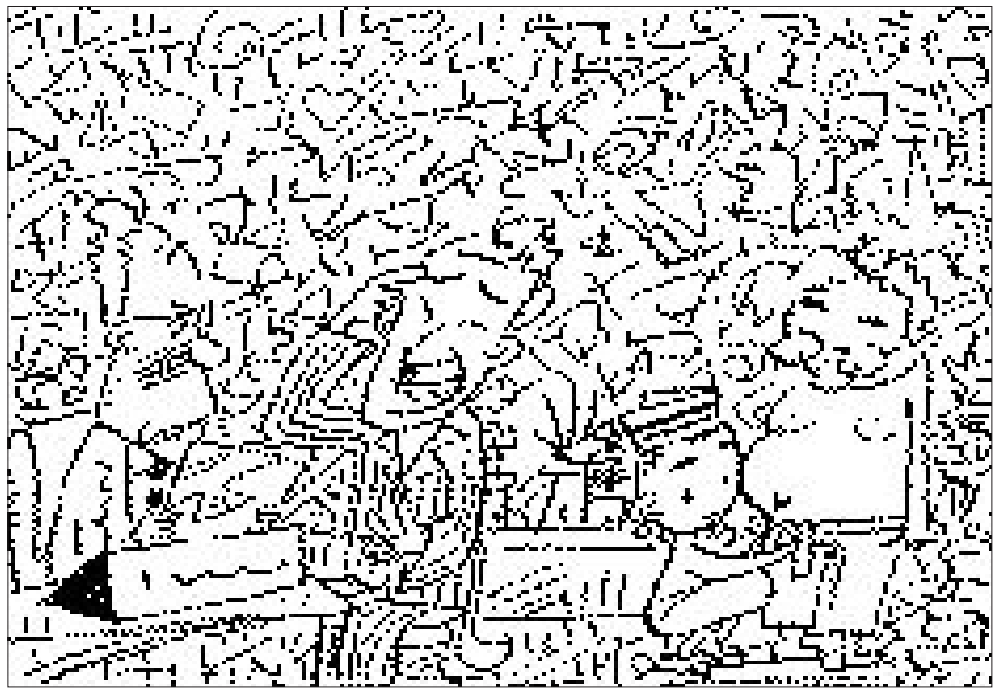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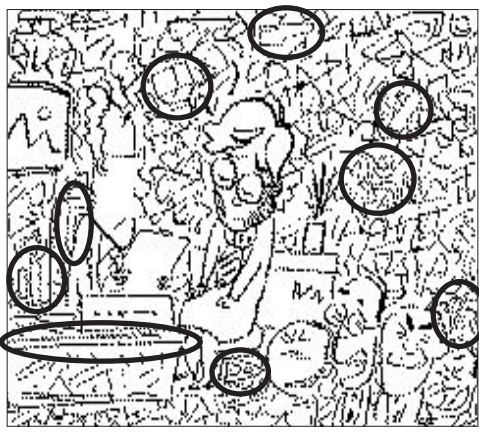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담배파이프, 국자, A자, 바늘, 양주잔, 열대어, 뚝, 펜촉, 다리미

운동

어느 병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운동을 조금 더 하면 병에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말했다.

기왕이면 활동적인 운동이 더 좋다고 했다. 그러나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전에는 TV에서 골프경기를 보곤했는데, 앞으로 테니스나 축구 경기를 봐야겠군요.”



지난주 정답

다리미, 우유팩, A자, 구두, 뚝, 종이배, 음료, 갈매기, 바늘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이은영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안용식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80년 5월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



전국에 5·17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전날인 1980년 5월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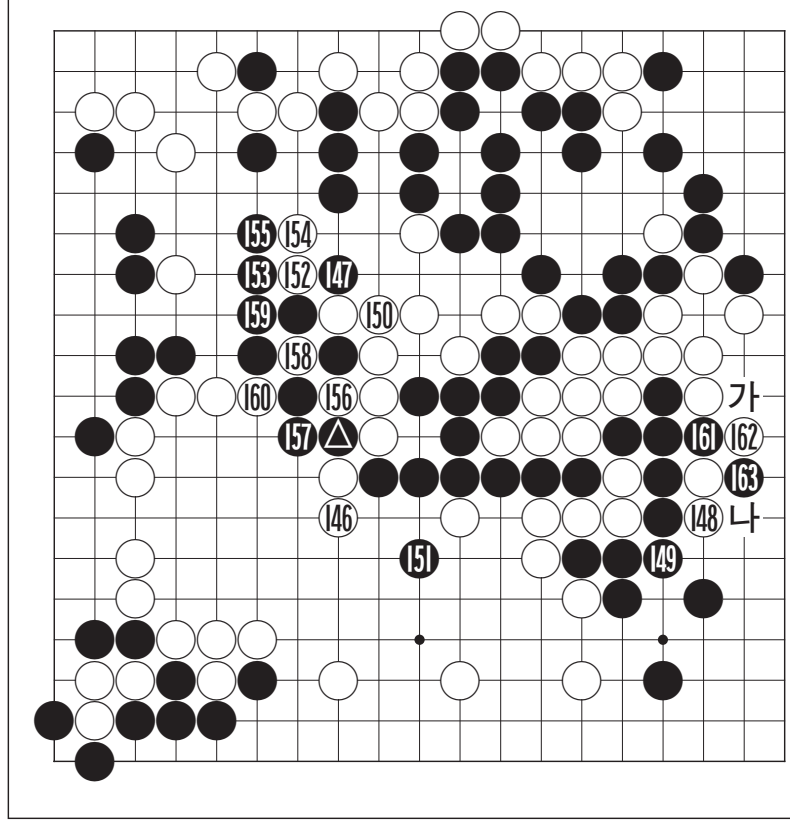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이어 1979년 신군부 세력에 의한 제 2군사 쿠데타(12·12사태)가 발생했다.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우리나라는 군사통치 시대로의 회귀하게 된다.

전국의 학생연대는 1980년 5월15일 서울역에서 10만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에 대한 성토대회를 벌였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교내에서 민족민주화성회를 마친 전남대 학생 1만여 명과 조선대, 광주교대 학생, 전남대 교수와 시민 등 수만 명이 도청 앞 광장에 운집했다. 16일에는 대학생과 시민 등 5만여 명이 도청 앞 광장에서 민족민주화성회를 열고, 시내의 주요 도로를 따라 궤양 행진을 펼쳤다. 신군부는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계엄포고 10호를 발표하고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했다. 계엄포고령 제10호는 정치활동 금지와 대학휴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고령에는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

계엄을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는 물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가 일괄 금지됐다. 또한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사전검열 조치와 함께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휴교령까지 내려졌다.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두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됐고, 신군부는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꺾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계엄령이 확대된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는 5·17 계엄확대에 맞선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등교를 저지하는 계엄군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계엄철폐'와 '휴교령철폐'를 외치며 시내로 진출했고,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전남도지사께 전국아마최강전

본선 2회전

삼재욱 6단이 가져왔던 흑 ▲로 끊어간 장면이다. 이제 타협은 물건너 갔다. 박성균 7단은 비통한 표정으로 일단 146에 버티고 있으나 체명의 빛이 역력하다. 흑 151이 또 자신감 넘치는 강수였다. 이 수로는 전보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47로 단수하고 바깥에서 조이기만 해도 최소한 비는 된다. 그러나 삼재욱 6단은 '유리할 때 싸워라'는 격언대로 계속해서 강수를 터뜨리며 박성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상전의 기대는 사라지고 백 156으로 단수해 패를 노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삼재

통쾌한 승리 9보(146~163)

白 박성균 7단 (강원) / 黑 삼재욱 6단 (광주)

욱은 이미 이 패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고 있었다. 흑 161로 끊고 163으로 끊어간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이 수를 당한 박성균 7단은 사색이 된 채 한동안 바둑판을 뚫어질 듯 바라다 보더니 드디어 건디지 못하고 항복을 한다. 계속해서 둔다면 '가'로 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흑이 '나'로 잡는다. 이렇게 되면 우변의 백과 중앙이 양패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건딜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나도 잘싸운 삼재욱 6단의 통쾌한 승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최철한, 프로기전 2연승

최철한 9단이 응씨배 준결승 진출에 이어 국내 기전에서 선전하고 있다. 최철한은 지난 12일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리그전에서 박정삼 9단을 252수 끝에 불계로 물리쳤다. 박정삼은 파상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최철한의 두터운 수비를 뚫진 못했다. 이로써 최철한은 2연승을 달리며 이 세를 9단과 함께 리그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올해에만 18승5패의 성적을 올리며,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대회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 60초 초읽기 5회이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눈썹 메이크업 ①

- ▲진한 눈썹: 미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색 아이브로우 마스크라로 눈썹 색을 톤 다운시켜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한다.
1. 눈썹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썹산은 날카롭지 않게 정리한다.
2. 갈색 브로 마스크라로 톤을 부드럽게 해준다.
3. 눈썹머리와 꼬트머리를 펜슬로 정돈한다.
▲ 짝짝이 눈썹: 조금 긴 눈썹을 기준으로 다른 쪽 눈썹의 길이를 맞춰 그려준다. 단단한 펜슬을 이용해 살짝 덜 그린 듯이 표현한다.
1. 눈썹의 양쪽 모양을 균형 있게 맞춘다.
2. 길이가 모자란 부분은 펜슬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준다.
3. 양쪽을 자연스럽게 맞추기 위해 갈색 색도로 메워주고 마스크라로 마무리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음 4월 10일 甲寅)

- 子 36년생 자식과 이웃간의 소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48년생 손재가 나타날 수 있다. 60년생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나 아직 시기상조이니 기다리라. 72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84년생 시시상조이니 숨을 돌리고 주변을 보라. 행운의 숫자: 01,31
丑 37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49년생 앞으로 불운사가 예상되니 흥사는 없다. 61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73년생 시기상조이니 숨통이 터진 기분이다. 8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득재하라. 행운의 숫자: 18,43
寅 38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기 좋을 수는 없다. 50년생 부진을 찾아 밟고 불안인사를 드러라. 62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라. 74년생 시비를 가리는 중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4,26
卯 39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1년생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3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정을 확보해야. 75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06,35
辰 40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만들지 말고 분수를 지어라. 6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묘를 준수하고 만족하라. 76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되고 귀인이 도래한다. 행운의 숫자: 02,32
巳 41년생 적시에 마무리하여 모든 의원을 풀고 싶니 편으로 집중하라. 53년생 황제는 바리치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5년생 생기가 발신하고 옛정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77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3,44
午 42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4년생 숙련숙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6년생 재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78년생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0,28
未 43년생 뿔 뿔 뿔한 구성만 있고 남성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5년생 중간간의 음모를 살펴보라. 67년생 집안이 위승승하니 짐작성을 잃지 마라. 79년생 흑 남의 일이 오르내려도 공개치 말고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22,43
申 44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56년생 모든 의원을 정리위주로 바래라. 68년생 과욕은 금하고 근진지간 통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독신자는 의중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13,40
酉 45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7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9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통하지 않는 것이 좋다. 81년생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19,42
戌 46년생 큰 고봉은 없다. 58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내은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82년생 아는 길도 못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드르지 말고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20,16
亥 47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9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치 말고 실리를 점검하라. 71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83년생 새 맛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으나 후일을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24,4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품구문의료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59> 오하오우 니혼고 <1159> 니하오 쫑구워 <136> 한자 이야기 <776>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물 찾으세요, 도와 드릴까요?
A: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B: Not right now.
A: Let me know if I can be of any help.
B: You bet.
A: 물 찾으세요, 도와 드릴까요?
B: 아직은요.
A: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 주십시오.
B: 물론 그래야죠.
* be of any help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다
* You bet = of course.
* 책이 입하되면 알려 주세요.
= Let me know if you get the book in.
* 존이 전화하면 알려주세요.
= Let me know if john calls.

旬(しゅん)の物が一番美味しいですよ
제철에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A: いちごは今が一番(いちばん)おいしい季節(きせつ)ですね。
B: ええ、今は一年中(いちねんちゆう)でも食べられますけど。
A: そうは言(い)っても、旬(しゅん)の物が一番美味(おい)しいですよ。
B: それに、體(からだ)にもいいって言(い)いますし。
A: 딸기는 지금이 제일 맛있는 계절이군요.
B: 예- 지금은 1년 내내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요.
A: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철에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B: 게다가 몸에 도 좋다고 말합니다.
* いちご: 딸기
* 何(なん)でも: 뭐든지
* 食(た)べられる: 먹을 수 있다

我买了一个机器人,
저는 로봇을 한 개 샀습니다
A: 新的商场有什么?
xin de shāngchǎng yǒu shènmé
신인 상점 뭐가 있어?
B: 东西很多。
dōngxi hěn duō
동서천부다
A: 你买了什么玩具?
nǐ mǎi le shènmé wánjù
니 샀어? 뭐가 있었어?
B: 我买了一个机器人。
wǒ mǎi le yí ge jīqìrén
저 샀어? 한 개 로봇 샀어?
A: 새 상점에는 뭐가 있어?
B: 물건이 엄청 많아.
A: 너는 어떤 장난감을 샀어?
B: 나는 로봇 한 개를 샀어.
玩具 (wánjù) 장난감

得魚忘筌(득어망전)
얻을 득, 고기 어, 잊을 망, 통발 전
득어망전(得魚忘筌)이란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다. 즉 목적을 달성하면 수단을 잊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을 비유하는 토사구팽(土死狗烹)과는 본래 다른 뜻이지만, 오늘날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장자(莊子)'는 득어망전에 이어 다음처럼 말한다. "땀(黠)은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니 짐승을 잡고 나면 땀을 잊어버린다. (得兔而忘罟)" "말(言)은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뜻을 다 알게 되면 그 말을 잊어버린다.(得意而忘言)"
여기서 '망전(忘筌)' '망제(忘罟)' '망언(忘言)'이란 모두 절대 진리(真理)를 깨달은 초월의 경지를 말한다.
장자는 절대적인 진리의 경지에 오르면, 시비(是非)·선악(善惡)·추미(醜美)를 구별함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장자는 사람들이 한쪽 면만을 보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즉 참 자유의 절대경지에 들어가면 그 절대경지에 들어섰다는 것조차도 잊고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